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1期(2026.01.02) WWW.MINGHUI.ORG

한글판 1035호 minghui.or.kr



▲ 12월 21일 오전 8시 30분, 대만 북서부 타오위안시, 신주시, 신주현, 야오리현 등 4개 현·시의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주베이 문화공원에 모여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즐거운 새해를 기원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두 합장하고 다 함께 외쳤다. “사존께서 새해 즐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주 요 내 용

【해외종합】 션윈, 대만 순회공연 시작… 총통과 정계 인사 100여 명 환영

【해외종합】 브라질 수련자들, 중국법회 글 읽고 깊이 공감

【중국소식】 렌시 수련자 류훙샤 박해로 사망, 가족 진상 폭로(2)

【수련교류】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안다

【수련교류】 대법 속에서 향상되는 경이로움

〈목차〉

■ 해외종합

션원, 대만 순회공연 시작… 총통과 정계 인사 100여 명 환영 ……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6
중국법회 글 읽으며 비학비수하는 인도 수련자들 ………………	11
브라질 수련자들, 중국법회 글 읽고 깊이 공감 ………………	15

■ 중국소식

다롄시 수련자 류홍샤 박해로 사망, 가족 진상 폭로(2) ………………	20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27

■ 수련교류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안다 ………………	31
놀란 노인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	35
생각나면 가서 구하고 만나면 진상을 알리다 ………………	41
대법 속에서 향상되는 경이로움 ………………	46
옛 기억 뒤에 숨겨진 사람의 정과 집착 ………………	48
대법제자는 정말로 지옥에서 제명됐다 ………………	51
류홍샤 박해 사건에서 유출된 증거가 반(反)박해에 주는 시사점 …	54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종합

션원, 대만 순회공연 시작… 총통과 정계 인사 100여 명 환영

[명혜망](춘보·쑤룽 기자 종합보도) ‘세계 제일의 쇼’라는 명예를 누리고 있는 미국 션원(神韻)예술단이 18번째로 대만을 방문했다. 2025년 12월 28일 저녁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에 도착한 션원은 2026년 시즌 아시아 태평양 순회공연의 첫 여정을 시작하며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중화민국 총통은 축전을 보내고 화환을 증정하며 션원을 환영했고, 정계 인사 100여 명이 잇따라 축사를 보내 대만 시민들에게 최상의 예술적 향연을 선사할 션원을 환영하며 공연 성공을 기원했다.

션원은 대만 주류사회에서 이미 높은 명성을 쌓았고 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이 일찌감치 션원의 팬이 됐다. 션원예술단이 18번째로 대만을 방문하기 전야에, 라이징더 중화민국 총통과 정계 인사 100여 명이 잇따라 축하 서신과 표창을 보내 션원의 대만 방문을 환영하고 공연의 순조로운 성공을 기원했다.

션원예술단이 대만을 방문하기 전야에 라이징더 중화민국 총통은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션원예술단이 민국 114년(2025년) 12월 30일부터 115년 2월 8일까지 대만 순회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축전을 보냅니다. 이번 성대한 행사를 통해 창의적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관·연수·교류를 촉진하며, 인문 예술 소양을 함양해 평화롭고 이성적인 양질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앙 부처 장관들이 축하를 보냈는데, 입법원장, 고시원장, 디지털발전부 등 중앙정부 관리 13명이 축사를 보냈다. 그중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은 ‘관절고금(冠絕古今-고금을 통틀어 으뜸)’이라며 션원의 예술적 성취를 극찬했고, 저우홍센(周弘憲) 고시원장은 션원이 ‘무자절륜(舞姿絕倫-춤사위가 비할 데 없이 뛰어남)’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린자룽(林佳龍) 외교부장은 ‘신채의연 풍화류운(神采奕然 風華流韻-신비로운 광채가 뚜렷하고 우아한 풍채가 흐름)’이라며 션원의 풍모를 형용했고, 황스제(黃世杰) 법무부 정무차장은 ‘예단정영(藝壇精英-예술계의 엘리트)’이라며 뜻을 전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들도 션원의 도착을 열렬히 맞이했다.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신무비양 운전사해(神舞飛揚 韻傳四海-신묘한 춤이 날아오르고 그 운치가 사해에 전해짐)’라고 축하했고, 뤄원자(羅文嘉) 해협교류기금회 부이사장 겸 비서장도 ‘신채묘운 원만성공(神采妙韻 圓滿成功-신비로운 광채와 오묘한 운치, 원만한 성공)’이라는 축복을 보냈다.

문화계에서는 샤오쭝황(蕭宗煌) 국립고궁박물원 원장이 특별히 서신을 보내 “션원은 뛰어난 중화 전통 무용에 동서양 악기가 융합된 음악,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3D 스크린과 화려한 의상을 결합해 깊은 문화적 저변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줍니다”라고 밝혔다. 왕란성(王蘭生) 국립국부기념관관장도 ‘신비경 수무 운동보생련(神飛輕袖舞 韵動步生蓮-신묘하게 날아 가볍게 소매 춤추고, 운치 있는 움직임에 걸음마다 연꽃 피어나네)’이라며 션원의 예술적 표현을 찬양했다.

3년 전 대만을 방문했던 션원 사회자 탕원은 올해가 션원 창립 20주년이며 대만이 이번 시즌 아시아 공연의 첫 역이라 각별히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번 시즌 공연을 위해 션원은 반년 넘게 준비했고 모든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 제작됐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순회공연을 시작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션원이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영받을 것이라 믿는다며 “션원은 공산당이 없는 중화문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션원이 보여주는 것은 신성(神性)에서 유래한 문화로, 중국공산당(중공)이 선전하는 무신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사람들이 션원을 보면 무엇이 진정한 중화문화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공연에서는 거의 볼 수 없거나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관객들은 신과의 연결을 느끼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션원예술단은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타이베이, 타오위안, 가오슝, 야오리, 장화, 자이, 타이중 등지에서 총 33회 순회공연을 펼치며 대만 관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즌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이다. 션원 공연 일정과 티켓 예매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ShenYu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 출신 션원 수석무용수 판후이이(范徽怡)는 처음으로 예술단을 따라 고향에 돌아와 공연하게 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기회에 아시아로, 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말 벅찹니다.” 그녀는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만 관객들에게 “올해 공연이 관객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선(善)한 힘을 가져다주길 희망합니다”라고 전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6년 새해의 종소리가 곧 울린다. 새해를 맞아 중국에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대법제자들이 자비롭고 위대하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새해 문안을 올렸다. 사부님의 보호 속에서 대법제자들은 또 한 해를 걸어왔으며, 일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상을 알리고 법을 실증해 왔다. 찬란한 신기원이 열리는 역사적 시점에서 제자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을 잘 수련해 더 많은 중생을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가 각지에서 가장 성실한 마음으로 사부님께 새해문안을 드렸다. 애나는 “사부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님께 새해인사 올립니다”라고 말했다. 애나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어느 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갑자기 뇌졸중이 왔고 각종 합병증이 잇따랐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랐고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그는 병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얻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었다. 애나는 “만약 누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겪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어머니도 아버지의 수련 과정을 지켜보셨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감탄했다. “대법은 정말 신기해요.”

2025년 성탄절과 2026년 새해가 교차하는 시점에 션원 2026 월드투어가 유럽과 미국 7개 도시에서 20여 회 공연을 가졌으며, 곳곳에서 만석 및 조기 매진을 기록했다. ‘당신의 인생과 관계된 공연’은 즉시 관람 열풍을 일으켰다.

프랑스 암네빌과 보르도, 폴란드 토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텍사스 휴스턴, 코네티컷 워터베리, 플로리다 잭슨빌에 이르기까지 관객들은 션원이 “예술의 최고 경지에 도달했다”고 극찬했으며, 많은 사람이 내면의 전율로 눈물을 흘렸다. 특히 연말연시 엄동설한에 온 가족이 함께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신적 향연’에 참석해 시야와 흉금을 넓히고,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와 힘을 느끼며 신(神)과의 연결을 찾았다. 프랑스 철학 교수 샤를 에릭 드 생제르맹(Charles-Éric de Saint-Germain)은 션원이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봐야 할” 공연이라고 말했다. “무용이 화려하고 의상이 정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내포입니다. 공연이 전달하는 가치관, 즉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은 매우 심오합니다.” 파룬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인 나탈리아 곤차로바(Nathalia Goncharova)는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구매했다. “이런 철학 사상의 기원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2026년은 미국 션원예술단 창단 20주년이다. 미국 워싱턴DC 시장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션원예술단 창단 20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바우저 시장은 션원예술단이 이룩한 뛰어난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중화 문화의 장엄한 찬란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상호 존중을 증진시킨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션원이 워싱

턴 D.C. 시민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객에게 희망을 전해 주고 깊은 감동을 안겨준 데 감사를 표하며, 2026년 1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션원의 첫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무대가 되기를 기원했다. 션원예술단은 2026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케네디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미국 수도권 관객을 위해 총 10회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2025년 12월 27일, 독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수도 베를린 ‘팔레 암 제(Palais am See)’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독일 각지와 스위스 독일어권 지역 수련자들이 법회에 참가했다. 법회에서는 수련자 18명이 정법(正法) 수련 중의 심득체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각자 대법 항목에서 어떻게 수시로 사부님의 법리에 비추어 자신을 안으로 닦고, 정념정신(正念正信)을 유지하며 심성을 제고했는지 소개했다. 또한 떨쳐버리기 어려운 집착심을 내려놓고 난관을 돌파하며, 사부님의 보호 아래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고 대법을 원용한 과정을 공유했다.

12월 20일, 독일 뉘른베르크 파룬궁수련자들이 도심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철야 활동을 하며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고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지속적으로 박해해 온 범죄를 폭로했다. 많은 시민이 비치된 청원서에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활동을 지지했다. 행인들은 여러 차례 이런 진상을 사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좋다며 파룬궁수련자들이 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25년 싱가포르 연례 법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19명의 수련자가 차례로 자신을 수련하고 사람을 구하는 수련 심득을 나눴다. 천(陳) 씨는 수련에 입문한 지 2년여 만에 심신에 환골탈

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의 위장병과 생리통이 모두 약 없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법 속에 녹아드는 오묘함을 직접 체험했는데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에 대한 감사와 만고에 만나기 어려운 수련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여러 발표자가 수차례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참석자들은 수시로 박수를 보냈으며,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격려와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장기이식 고려회(SMG Network)가 주최한 ‘생체 장기적출 반대’ 포스터 전시회가 일본 가나가와현 가나가와 구민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와 동시에 24일에는 가나가와 공회당에서 다큐멘터리 ‘생체 장기적출(活摘)’이 상영됐다. 전시회와 영화를 보러 온 시민들은 중공의 불법적인 장기적출 및 매매 진상을 알게 됐으며, 무고하게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의 경험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즈시(逗子)시 의회의원 마루야마 히로아키(丸山治章)는 상영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 시민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생체 장기적출 범죄가 사실 우리 일본인, 그리고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도 실제 행동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수련자들을 격려하며 덧붙였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글어도 절대 새지 않는다(天網恢恢 疏而不漏)’라는 중국 고사성어처럼 악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수련자들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클

랜드 시내 커머셜 베이(Commercial Bay) 광장에서 연공하고 진상을 알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했다. 그들은 왕래가 잦은 광장에 진상 부스를 설치하고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하며 무료 공법교습을 했다.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용춤팀도 공연을 펼쳐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호주에서 온 샤파일라(Shakaila)와 루크(Luke)는 파룬궁수련자의 단체 연공을 지켜봤다. 샤파일라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부좌하는 모습을 보고 에너지를 선명히 느꼈고 매우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활동이 평온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이념을 전달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조용히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런 상태가 사람을 온전하고 균형 있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인권변호사 케리 고어(Kerry Gore)가 현장을 찾아 연설하며 지지했고, 파룬궁수련자들이 오랫동안 진리를 견지하고 용감히 박해에 맞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뉴질랜드 사회 각계가 파룬궁수련자들을 도와 중공의 박해를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질랜드 인권변호사 케리 고어는 연설에서, 파룬궁이 제창하는 진선인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을 넘어 수련자가 전체주의적 억압 속에서도 존엄과 내면의 힘, 인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오늘날 가장 가혹한 탄압 환경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으며, 민주사회에 사는 우리도 깊이 성찰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중국법회 글 읽으며 비학비수하는 인도 수련자들

글/ 인도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명혜망에서 제22회 중국법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90편의 수련 교류문장이 발표됐다.

인도 수련자들은 중국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읽으며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승화하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수련자들이 진선인(眞·善·忍)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의 26년에 걸친 박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지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수련 길을 잘 걷겠다고 말했다.

정체 협조를 배우다

마노라마(Manorama)는 75세의 인도 파룬궁수련자로 2016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중국법회의 교류문장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사부님의 법은 내 정념의 근원’이라는 글에 기록된 노수련자의 파괴할 수 없는 정신(正信)과 정념정행(正念正行)에 깊이 감동했다.

글에는 한 69세 여성 수련자의 변화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원래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으나 이후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사심 없이 남을 돋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녀가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노동수용소에서 고문과 박해를 당하던 고난의 세월 속에 일어났다.

그녀는 1998년부터 중국에서 파룬따파를 수련했으며 1년 반 동안 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돼 수많은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관리원은 그녀의 상황을 악랄하기로 소문난 소장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곧 도착했지만 뜻밖에도 나를 처벌하기는커녕 엄지를 치켜세우며 ‘당신 정말 대단하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노라마는 말했다. “그녀가 마주한 고난은 극도로 잔혹했습니다. 리홍쯔(李洪志) 사부님(파룬따파 창시자)의 대법 법리에 대한 파괴할 수 없는 정신과 생사를 내려놓은 두려움 없는 모습, 그리고 그 확고함은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더욱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하며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해 그들에게 대법 수련의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박해가 얼마나 비인도적인지 알리도록 자극제가 됐습니다.”

마노라마는 중국법회 문장이 전 세계 수련자들이 정진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계속되는 박해를 공동으로 폭로하도록 격려한다고 말했다. “내면의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고 자비로운 마음, 사심 없는 헌신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악에 맞서는 정신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확고히 수련할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명혜망 팀원 여러분, 이 사악한 박해를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자신이 더 잘하도록 자극을 주다

산토시(Santhosh)는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계 수련자로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는 매년 열리는 중국법회가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는 수련자들의 수련 과정을 보여주기에 매우 장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체험 교류문장은 매우 소중합니다. 만약 누군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편의 글을 썼다면 이는 그들이 이 일을 얼마나 신성하고 엄숙하게 여기는지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이는 거꾸로 우리가 자신의 수련에서 더 잘하도록 격려해줍니다.”

모든 글 중 그가 안으로 찾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거대한 시련 속의 신성한 큰 시험’이었다. 그는 예전에 수련이 느슨해질 때마다 늘 여러 가지 이유와 평계를 찾곤 했으나 이 글을 읽은 후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글쓴이는 가혹한 박해와 겹겹의 도전에 직면해서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인들에게 대법의 아름다움과 박해 진상을 알리는 데 전념했다. 산토시는 말했다. “제가 처한 환경이 안 일해질 때 절대 어떤 평계도 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글에서 산토시의 마음을 깊이 울린 또 다른 내용은 글쓴이가 2000년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시청구(西城區) 구치소에 감금됐을 때 들었던 한 베이징 가족의 이야기였다. 노부부와 그들의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온 가족이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노부부가 밖에서 박해 진상을 알리던 중 타지에서 천안문으로 청원하러 온 많은 수련자가 노숙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목격하고 마음이 매우 아팠던 노부부는 아들·며느리와 상의해 집 한 채를 팔아 이들을 돋기로 했다.

산토시는 말했다. “물질적 부를 이토록 쉽게 내려놓는 것은 겉

으로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수련자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제가 물질을 이토록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층차에 도달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닦아야 할 또 다른 측면입니다.”

산토시는 중국법회 교류문장 글쓴이들의 수련 상태를 묘사하며 그들 대부분이 파룬따파 법리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매우 견실하게 닦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명혜망 글을 읽을 때마다 즉시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이는 제가 짊어진 신성한 사명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도록 일깨우다

인도 남부 출신의 IT 전문가 호세(Jose)는 19년 전에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그는 올해 중국법회 교류문장을 읽은 후 동료, 친척, 친구 그리고 낯선 이와 함께할 때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앙 국유기업 체제 내에서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다’라는 글의 글쓴이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다년간의 수련을 통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때 사부님의 가족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을 포함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호세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부님의 가족으로 대우하고 그들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직장

이나 훌륭한 가정환경을 마련해주셨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호세는 이러한 교류문장을 읽으며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각 글은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제공해 모두가 함께 승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또한 명혜망 팀원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제 생활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를 격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체험들은 매우 소중하며 심지어 생명을 대가로 바꾼 것들입니다. 그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걸어온 과정을 지금 우리와 나누어 주는 것은 비할 데 없이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를 각별히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브라질 수련자들, 중국법회 글 읽고 깊이 공감

글/ 브라질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명혜망은 매년 중국법회를 개최해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투고를 요청하고, 그들의 수련 체험을 공유하며 명혜망에 발표한다.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90편의 글이 선정돼 발표됐으며, 중문을 24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파룬궁수련자들과 공유했다.

포르투갈어 번역문은 브라질 수련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브라질 수련자들은 이 교류 글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그중에서 많은 계발을 얻었다. 세 명의 브라질 수련자에게 이 교류 글은 중요한 수련 이념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고,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인식하게 했다. 즉 각국의 수련 환경은 다르지만 제거해야 할

집착과 수련인이 직면한 도전은 사실상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 표준에 도달하는 수련

브라질 수련자 크리스티나(Cristina)는 매년 중국법회 교류 글에서 거대한 가치를 발견한다며, 중국공산당(중공)의 잔혹한 박해 속 중국 수련자의 수련 상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이 이렇게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짊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품성과 가치관을 갖춰야 해요.”

“이 수련의 길에서 수련자들은 능동적으로 박해를 부정하고, 자신의 집착을 안으로 찾으며, 항목 일을 하는 동시에 법공부와 발정념을 중시하고, 전체가 협력해 대법제자 정체(整體, 공동체)를 원융하면서, 법 속의 지혜로 세상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고 악으로 악을 다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발생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교류 글에서는 연로한 수련자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을 알리기 위해 복잡한 기술을 배워 전단, 달력, CD를 제작한 것을 언급했다. 이는 크리스티나를 더욱 감동시켰는데, 기술을 배우고 조작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파악한 수련자가 자신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다. 중공이 흔히 진상 자료를 제작할 줄 아는 수련자를 타격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진상을 알리는 경험 속에서 이타심, 용기, 그리고 사부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특히 돋보였어요. 수련자들이 자신의 사명과 타인을 1순위에 놓고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데, 이 모든 것이 사부님의 보호가 있다는 굳은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녀는 또 말했다. “많은 수련자가 하려고만 하고 항목에 참여하려고 하면 사부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기회를 배치해 주신다는 걸 체득했어요.”

‘진상을 직접 대면해 알리며 체득한 수련의 깨달음’이라는 교류 글은 크리스티나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글은 한 수련자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입을 열어 세상 사람에게 박해 진상을 알리게 됐는지 서술했다. 그녀는 이 글이 자신도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밖으로 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박해의 진상을 알리도록 격려했다고 했다.

수련자로서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우다

다른 브라질 수련자 솔란지(Solange)가 말했다. “중국법회 교류 글은 제가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며, 구우주의 위사위아(爲私爲我, 이기심)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큰 격려가 됐어요.”

크리스티나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중국 수련자가 바른 믿음[正信]을 견지하고 박해 진상을 더 많은 중국 민중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면에서 비범한 용기와 의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했다. 솔란지는 법회 글에서 깊은 계발을 얻었고, 중국 수련자들이 어떻게 ‘정념으로 박해에 직면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법에 동화’하는지를 보았다.

솔란지는 많은 해외 수련자에게 아이 양육이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도전이라며, 아이가 반항하거나 가르치기 어려울 때 수련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법회

의 한 교류 글이 솔란지에게 큰 계발을 줬는데, 그 글은 나중에 스스로 수련에 들어온 수련자가 쓴 것으로, 수련자 자녀로서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었다.

그 글의 제목은 ‘내가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린 동안에도 사부님께서는 기다려주셨다’이다. 저자는 자신이 한때 수련에서 정진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줄곧 인내심을 갖고 자신을 대했고, 선념(善念)을 유지하며 자신이 수련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고 적었다.

“많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 수련체험은 우리에게 수련자로서 반드시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情)을 내려놓아야 함을 보여줬어요.” 솔란지가 말했다. “수련인으로서, 부모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대할 때 정에 좌우되지 말아야 해요.”

중국과 해외 수련의 공통점을 보다

티시아네(Ticiane)는 중국법회 글 두 편이 자신에게 특히 깊은 계발을 줬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생사를 내려놓고 신을 향해 나아가다’인데, 글에서 한 수련자가 수련 중에 만난 시련의 각종 원인을 분석하며 극복한 내용이었다. 티시아네에게 그 수련자가 법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 사고는 그녀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 것을 배우게 했고, 도전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했다. 그녀가 말했다. “때로는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요. 항상 단순한 업력 문제인 건 아니죠.”

한 젊은 수련자가 쓴 ‘내가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린 동안에도

사부님께서는 ‘기다려주셨다’라는 글도 티시아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속인 사회의 유혹 속에서 겪은 저자의 경험은 티시아네가 예전에 중국 수련자의 수련에 대해 가졌던 일부 고정관념을 생각하게 했다. 즉 그들의 수련이 ‘더 쉽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중국어를 알고, 파룬따파가 중국의 수련 공법이므로 중국인이 수련하면 더 쉬우며, 그들은 중국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명백히 알며 수련도 더 정진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티시아네는 이 글쓴이가 수련에서 이탈했다가 결국 다시 수련으로 돌아온 경험을 통해, 수련은 진정으로 한 사람이 내심으로 법에 대해 이해한 정도와 법의 준칙에 따라 행할 수 있는지에 달린 것이지, 결코 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했다. “수련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념과 더 관계가 있어요.”

다롄시 수련자 류홍샤 박해로 사망, 가족 진상 폭로(2)

[명혜망](종합보도) 이전에 언급된 종합보도 정보(전편 참조)와 랴오닝성 다롄시 공안국이 발행한 ‘다롄시 공안국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의 내용을 결합해 보면, 류홍샤(劉紅霞) 사건의 법률적 기초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파룬궁(法輪功) 박해에 가담한 자들이 법적 입장과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문건의 성격과 핵심 내용

다롄시 공안국 문건 복사본에 나타난 것은 ‘다롄시 공안국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이며, 번호는 ‘대공판의신청(2022)117호’, 작성 일자는 2022년 8월 18일이다. 이 문건은 다롄시 공안국이 시민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내놓은 공식 서면 회신으로, 전형적인 행정 정보 공개 답변 문건이며 형식이 비교적 규범적이고 요소가 완비돼 있다.

문건은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한 ‘다롄시 공안국 사교 전담 사무 실이 갖춘 감정 기구 자격 증서’, ‘감정인 자격 증서’ 및 성(省)급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감정 범위 등의 정보에 대해 “검색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36조 제4항에 근거해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를 내렸다.

2. 류홍샤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앞선 보도에서 이 문건은 류홍샤 가족이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려 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간주된다. 류홍샤가 기소되고

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인정 의견’이 핵심 증거로 사용됐는데 해당 ‘인정 의견’은 바로 공안 계통 내부의 이른바 ‘전담 기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관련 감정 기구의 합법적인 자격 증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인 자격 증서 및 그 등록 정보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류홍샤 사건 관련 ‘감정 의견’의 합법성과 증거 능력을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3. 법률 및 절차적 측면의 문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형사 사건의 핵심인 ‘감정 의견’이 행정 정보 공개 차원에서 ‘감정 자격 없음’이 확인된 기구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반영한다.

1) 증거 출처 불분명 또는 불법: 감정 기구 및 감정인이 법적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적어도 행정기관 스스로가 부인한 셈이다.

2) 절차적 정의 결여: 증거가 위조됐거나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원과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택한 것은 기본적인 증거 심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사법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됐다.

3) 책임 주체의 모호함: 행정기관이 ‘정보 부존재’로 회신할 때, 실제로는 감정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설명을 회피한 셈이기도 하다. 행정 주체가 ‘인정 의견’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인정 의견’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4. 문건의 현실적 의미와 상징성

류홍샤가 2022년 11월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이 문건

은 강렬한 현실적 풍자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공식적인 관인 문건의 형식으로 박해 사건 핵심 증거의 합법적 기초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억울한 사건의 시정이나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가족들이 이 문건을 여러 부처에 제출하고 공개한 목적은 사건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류홍샤가 겪은 고통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중공 악당 사회의 집행, 사법, 행정 감독 기관 사이의 심각한 고리를 반영하며 그 이면에는 박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공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다.

5. 요약 평론

이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고 규범적이며 요소가 완비된 행정 답변 문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류홍샤 사건의 ‘증거 합법성 결여’를 폭로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이는 앞선 뉴스 보도와 상호 교차 검증돼 사건의 쟁점과 심각한 인권 문제를 더욱 부각하며, 류홍샤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은 제도적 성찰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롄시 총면적은 1.37만 제곱킬로미터이며, 7개 구와 2개 현급시를 관할하고 상주인구는 753.9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15개 부성급 시 중 하나이자 전국 14개 연안 개방 도시 중 하나이며, 동북 지역 국제 항운 중심지, 물류 중심지, 지역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런 규모와 등급을 갖춘 도시의 공안국이 어떻게 한편으로는 사법 감정 결론의 의미를 지닌 ‘인정 의견’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 기구, 감정인, 등록 비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이 문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행정 관리와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부성급 도시(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인 다롄시 공안국의 구체적인 행위와 정보 공개 답변서의 내용이 이 토록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분석 대상이다.

이것은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운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 도시와 공안 체계 규모로 볼 때 이러한 정보 공개 답변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다롄은 상주인구가 7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자 부성급 도시로, 형사 수사,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 구), 법제, 기술 감정 등 공안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공안부 감정 기구 및 감정인 자격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안 기관이 ‘감정’이나 ‘인정’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감정 기구 주체, 감정인, 자격 증서, 등록 비치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정부 정보이며, 국가 비밀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롄시 공안국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찾을 수 없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2) ‘정부 정보 부존재’의 법률적 진의

‘정부 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보 부존재’는 몇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첫째, 다롄시 공안국이 ‘인정 의견’을 발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감정 기구나 감정인을 단 한 번도 설립하거나 생성한 적이 없는 경우다. 즉, 사칭 감정 기구가 행정적으로는 결코 합법적으로 존

재한 적이 없으며, 관련 감정인도 법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사용된 ‘인정 의견’은 합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고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기 위해 존재한 것이 된다.

둘째, 다롄시 공안국 내부에서 이러한 이른바 ‘감정 기구’나 ‘감정인’을 사설로 설치했지만, 대외적으로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며, 특히 민감한 사건, 전담 사무실, 임시 기구 및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관련될 때 더욱 그러하다. 즉, “다롄시 공안국 사교 전담 사무실의 명의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합법적인 감정 기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다.

3) 왜 공안국은 정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현실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답변은 종종 리스크가 가장 낮은 선택이다. 만약 ‘존재’를 인정한다면, 감정 기구가 언제 설립됐는지,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누가 이들의 ‘인정’ 과정 참여를 승인했는지, 관련 인원이 사법 감정 명단에 있는지, 감정인이 ‘사교 인정’과 ‘출판물 감정’을 동시에 수행할 전문 직함과 기술, 자격을 갖췄는지 등 일련의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궁은 증거 합법성의 붕괴, 조작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 행정 및 사법 책임 문제로 직결된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함으로써 다음을 꾀할 수 있다.

첫째, 행정 절차상 ‘지혈(止血)’: 이미 발생한 사실을 깊이 파헤치지 않음.

둘째, 영향 범위 통제: 형사 사건 자체를 건드리지 않음.

셋째, 지급(地級) 공안기관으로서 스스로 자초한 자가당착의 책임을 회피: 박해 정책으로 인해 강요된 모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당사자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떠넘김.

행정기관에 있어 이는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냉혹한 수법이며, 파룬궁수련자 박해 시 다롄시 공안국이 저지른 불법성을 희석하거나 모호하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4) 이 답변이 오히려 ‘문제를 설명해 주는’ 이유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란다. 이곳은 지방의 작은 파출소가 아니라 다롄시 공안국이라는 점이다. 위상이 높기에 이 곳의 정부 정보 ‘부존재’ 고지는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모른다”거나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다롄시 공안국’이라는 공식 명의로 부하 기관이 발행한 ‘인정 의견’ 서류—박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함 자료—to를 발행한 기구가 그럴 자격이 없음을 공식 확인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6. 억울한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박해는 여전히 은폐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훙샤의 남편은 이후 이 답변에 대해 계속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현재 해당 문건들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심판 기관과 법원이 이 정보 공개 답변 고지의 내용을 유지했다는 확실한 소식을 접했다.

류훙샤는 신념과 진상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받아 사망했으며,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의 유해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는 유사한 정보 공개 절차를 겪은 더 많은 수련자가 증거를 제공해, ‘인정 의견’류의 사악한 자료에 근거해 인권을 박해하

고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의 황당함을 증명해 주기를 희망한다.

7. 맷음말

이처럼 상당한 규모와 등급을 가진 다롄시의 공안 기관이 핵심 집행 자격에 대해 “정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건 합법성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다. 이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는커녕, 파룬궁을 겨냥한 전체 박해 사슬의 핵심 고리에 있는 황당함과 사악함을 본의 아니게 폭로한 것이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해 온 이 정치 운동은 이미 26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서서 명확히 책임을 지거나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개개인의 중국인과 중국이라는 국가에 가져올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이 글이, 독자들이 왜 이 문건이 주목받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안의 법적 문제와 제도적 결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미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읽고 중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독자들은 류홍샤의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한 마음을 표현해 주길 바란다.

위명릉(於朦朧)이 죽었으나 사인은 은폐됐고, 이에 대해 논하는 이들의 계정은 차단되거나 삭제됐다. 차오런량(喬任梁)이 죽었으나 내막을 아는 이들은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족들은 매수되거나 통제당했다. 후신위(胡鑫宇)는 실종됐고 뤄솨이위(羅帥宇)는 투신했으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입막음과 압박을 당했다. 89년 6.4 항쟁 ‘천안문 어머니회’는 집단으로 침

목을 강요당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했고, 수억 명 파룬궁수련자 가족, 동료, 이웃이 연좌제 방식으로 억눌려 있다. 이는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특정 몇몇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양심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되찾아야 한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시성 바오지시 천창구에 사는 75세 파룬궁수련자 훠구이란(霍桂蘭) 노인이 경찰의 가택 침입으로 납치되고 모함을 당했다. 그녀는 2024년 12월 17일과 2025년 3월 24일 두 차례 바오지시 진타이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12월 18일 징역 9년에 벌금 3만 6천 위안의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현재 그녀는 항소한 상태다. 훠구이란 노인은 2024년 4월 11일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야만적으로 납치됐다. 젊은 경찰 네 명은 그녀를 4층에서 1층까지 그대로 질질 끌고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몸은 시멘트 계단에 그대로 부딪혔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같은 날 납치된 파룬궁수련자 장옌추(張硯秋·67)는 진타이구 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만 2천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리충차오(李從巧) 8년, 친이(秦怡) 5년, 차이슈팡(柴秀芳) 5년, 왕과이옌(王乖燕)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장웨이홍(張煒紅)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상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광둥성 마오밍시의 60대 파룬궁수련자 타오융홍(陶永紅)과 왕잉(王英)이 단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과 박해받는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 12월 1일 마오난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2만 5천 위안의 벌금을 강탈당했다. 2023년 12월 13일 정오, 타오융홍과 왕잉은 마오밍시 마오난구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지도원 왕진하이(王金海), 양샤오쓰(楊曉斯)와 관두 파출소 경찰 장충(張翀) 등에 의해 납치돼 2년간의 불법 구금과 사법 모함을 겪었다.

지린성 창춘시의 53세 파룬궁수련자 장자통(蔣佳彤)은 2025년 4월 30일 자택 단지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이후 청시 파출소 경찰 장펑(姜鵬) 등에게 납치, 가택수색을 당했다. 11월 8일, 장자통은 창춘시 차오양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자통이 납치돼 불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녀의 가족은 줄곧 장자통 본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이 법원에 가서 다시 문의했을 때야 비로소 장자통이 이미 12월 11일 지린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이 감옥으로 면회를 갔으나 감옥 측은 허락하지 않았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두 노인이 명혜망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다시 수련하겠다는 ‘엄정성명(嚴正聲明)’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최근 현지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으로부터 불법 형을 선고 받았다. 68세 리위안유(李源佑)는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85세 잔다이후이(詹貸輝)는 불법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허베이성 탕산(唐山)시 71세 파룬궁수련자 하오수핑(郝淑萍)이 2025년 7월 탕산시 위톈현에서 경찰에 납치돼 탕산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녀는 탕산시 춘화시 검찰원으로 송치돼 모함당 했으며, 10월 29일 춘화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하오수핑은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미 항소했다.

산둥성 칭다오시 평두시 주거우진의 78세 파룬궁수련자 쑤이광화(隋廣花)가 2025년 6월 19일 시장에서 사복 경찰에게 미행당해 납치됐고 푸둥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10월 16일 오전 쑤이광화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현재 억울한 판결을 받고 현재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받고 있다. 중공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쑤이광화는 이미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과 한 차례 불법 판결을 받아 총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바 있다.

쓰촨성 난충시 이릉현 파룬궁수련자 귀췬(郭群·약 50세)은 2024년 9월경 경찰에 납치돼 구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이릉현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난충시 자링구 구금센터에 감금돼 있다. 억울한 형기는 약 8개월 남았다.

쓰촨성 청두시 평저우시에 거주하는 85세 파룬궁수련자 천구이펀(陳桂芬)은 2024년 5월 22일 경찰에게 집에서 다시 납치된 뒤 행방불명이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천구이펀은 불법적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아 청두 여자감옥 5감구에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쓰촨성 쑤이닝시에 거주하는 86세 파룬궁수련자 류다슈(劉大秀)가 2025년 10월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중공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청두 룽취안이 여자감옥에 감금돼 박해받고 있다. 류다슈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대한 신념을 견지했다

는 이유로 일찍이 2003년에도 중공 당국에 의해 불법적인 4년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5년 11월 29일, 쓰촨성 청두시의 80세 파룬궁수련자 장펑센(張鳳仙)이 푸난신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칭양구 공안분국으로 보내졌고, 당일 밤 피현 안징에 위치한 청두시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형사 구류됐다. 12월 18일, 구치소에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심장 박동은 이미 멈춘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다.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의 80대 파룬궁수련자 양리청(楊立成)은 2021년 납치돼 4년 6개월의 억울한 형을 선고받고 다시 타이라이 감옥에 불법 감금됐다. 본래 그는 2025년 9월 말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2025년 8월 박해받아 뇌출혈 증세가 나타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2025년 6월 말, 5년간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받은 칭하이 시닝시 파룬궁수련자 차오성샹(曹生祥·남)이 집으로 돌아왔다. 감옥에서 장기간 엄격한 통제, 고강도 노역, 생활 학대, 가족과의 서신 및 면회 금지, ‘엄중 관리’ 등 잔혹한 박해를 받아 차오성샹은 심신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귀가한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억울함을 안은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였다. 차오성샹은 생전에는 칭하이 공로국 산하 기관인 칭하이 시닝 교통병원 후근과 과장을 지냈다. 그는 파룬따파 수련에 대한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중공에 의해 불법 강제노동 1회, 불법 판결 2회를 받았다. 각각 강제 노동 1년, 징역 5년과 5년으로 총 11년에 달하는 박해를 겪었다.

■ 수련교류 ■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안다

글/ 중국 대법제자 춘우(春雨)

[명혜망] 저는 1999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전염병이 그렇게 심각했을 때도 저희 온 가족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딸은 “걱정할 게 뭐 있어, 엄마 몸은 걱정도 안 돼. 엄마는 돌을 먹어도 소화할 정도로 건강하시거든”이라고 말합니다.

1. 득법의 기쁨

득법 전의 저는 병약자였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서 자다가 숨이 막혀 깨면 즉시 일어나 앓아야 했고, 주머니에는 항상 ‘속효구심환’을 넣고 다녔습니다. 류머티즘과 위장병도 있었으며 치질도 심했습니다. 치질이 도지면 출근은커녕 침대에 엎드려 있어야 했고, 먹지도 배설하지도 못해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한 여직원이 파룬궁을 권했는데 마음이 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며칠간 연공을 했고 그러자 치질이 나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수련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중공 악당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파룬궁이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수련하지 말라고 권했고 남편도 반대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제창하고 맞아도 대응하지 말고 욕해도 대꾸하지 말라고 한다. 만약 수련을 못 하게 한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당신과 싸우겠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다퉁칩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니 치질이 도져서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싸우지 말고 수련을 해야 한다. 파룬궁은 이렇게 좋은데, 돈 한 푼 안 들고 병이 나았으니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일을 찾겠는가!’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누가 뭐라 하든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2022년에는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땅을 디딜 수 없었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수련인으로 간주하고 안으로 찾으며 심성을 높였고, 법공부를 견지하고 연공을 했더니 20여 일 만에 나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손 손목도 부러져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한 달 남짓 만에 나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다 더 빨리 회복됐습니다. 제 가족들은 이미 파룬따파의 기적을 목격했기에 대법을 매우 믿습니다. 제가 다쳤을 때 딸은 “엄마 참으세요, 좀 아파도 참으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 보이면 온 가족이 “빨리 가서 연공하세요”라고 말합니다.

2. 가족이 입은 혜택과 득법

제 남편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가 잠시 후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그는 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했고 의사도 원인을 잘 모르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하니 나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좋아지면 수련을 안 하다가 안 좋아지면 다시 수련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차를 몰고 외지에 가다가 갑자기 병이 도져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핸들을 돌릴 수도 없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얼른 엄마 따라서 배워라! 오늘 이 차가 어떻게 멈췄는지도 모르겠다.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사부님은 정말 자비로우시다!”

제가 둘째 언니 집에 들렀다가 대법서적을 두고 왔습니다. 전화를 걸어 가지러 가겠다고 하니 언니는 “다음에 올 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사람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법 책이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파룬궁은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언니는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수련하기 전 언니 집에 머물 때 심장병이 심해서 자다가 숨이 막혀 일어나 앓곤 했던 일을 떠올리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연공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사부님께서 바로 몸을 정화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좀 걱정하자 언니는 괜찮다며 오히려 정신이 맑다고 했습니다. 언니 자궁에는 혹이 두 개 있었는데 의사가 조만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수련한 뒤 언니는 완쾌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언니는 연공 후 피부가 고와지고 아주 젊어졌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언니의 천목(天目)도 열어주셨는데, 포륜(抱輪)을 할 때 다른 공간의 정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맑고 투명한 산수와 초록빛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날아갈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3.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안다

저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은 대외적인 업무를 보고 저는 내부 운영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여 직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말은 안 믿어도 제가 말해야 행동에 옮깁니다. 사장님은 때로 돈에 인색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미 직원들에게 약속했다면 제 돈을 털어 지불한 적도 많았습니다.

사장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를 아는 사람 중 좋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기여도와 능력을 보며 보수가 너무 적으니 따로 독립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장을 도와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회사는 제게 진상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으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사장님도 수천만 위안의 재산을 모았는데, 이는 그녀가 제가 대법 수련하는 것을 지지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진상을 알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킵니다. 모두 제 인품을 매우 신뢰하며 저의 선함을 느낍니다. 한번은 경찰이 우리 회사에 왔는데 제가 진상을 알리자 그도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소장에게 알렸고, 소장이 우리 사장을 찾아와 저를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사장님이 막아주었습니다.

놀란 노인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올해 90세로 수련한 지 30년이 됐으며, 나의 생명은 사부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임을 알고 있다. 수련생의 격려로 수련 중 경험한 몇 가지 일을 말하여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하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1. 진상을 모르는 경찰 구하기

초기에 진상을 알릴 때는 기성 자료가 없어 내가 직접 펜으로 써서 스티커를 만들어 나가 붙였다. 나중에 진상 자료가 생기자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매번 나갈 때마다 배낭 가득 담아 이야기하면서 나눠주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주었다.

2010년 5월 13일, 이날은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다. 나는 수련생 A와 함께 진상을 알리러 나갔다. 막 자리에 앉아서 목에 병이 있는 한 사람에게 진상을 알려주려는데 경찰 한 명이 와서 “당신 신고당했으니 우리와 함께 공안국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가져온 진상 자료를 모두 사무실 책상 위에 쏟아놓고 협박했다. “빨리 신분증을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몸수색을 할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노인증을 주었다. 그들은 직장에 전화를 걸고 등록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고 자료를 정리했다.

전체 과정에서 나는 계속 발정념을 했다. 경찰이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사람을 해치고 업을 짓지 못

하게 했다. 동시에 사부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논어(論語)’와 ‘홍음(洪吟)’을 외웠다. 우리는 줄곧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계속 정념을 지켰으며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생각이 바르면 사악은 무너지리라”(홍음2-두려울 것 뭐냐)였다. 나중에 그들이 나를 불러내 따로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때 책상 위에 쌓인 션원 CD, ‘5·13’ CD, 소책자 등 진상 자료를 보고 마음속에 일념이 떠올라 그들이 먼저 션원 CD를 보게 했더니, 그들이 정말로 션원 CD를 보기 시작했다.

나중에 사무실에는 경찰 한 명만 남았는데, 나는 그가 국장임을 알고 그에게 “날이 어두워지니 집에 가서 밥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데 밖에 나와서 뭐하세요, 수련하려면 집에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때 두 사람이 와서 우리 둘을 데려가려 했고, 내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그가 610이라고 했다. 나는 공안국장에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 돼서 큰 재난이 올 때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국장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차에 타니 기사가 “파룬궁이 그렇게 좋습니까?”라고 물었다. 610 사람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왜 나왔어요? 오늘이 ‘5·13’이에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궁은 당연히 좋지요. 저는 심장병을 그렇게 오래 앓아서 병원에도 여러 번 입원했지만 낫지 않았고, 삼차신경통도 여러 해 앓았는데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했어요. 파룬궁을 배우고 수련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두 나았으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믿지 못하겠으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보세요. 분명히 당신들에게도 좋

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직장으로 보내, 다시 파출소와 가도(街道)에 넘겼으며, 내 딸을 불러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와 함께 공안국에 갔던 그 수련생이 무사히 집에 갔는지 계속 걱정했다. 밤 12시에 발정념을 마친 후 사부님 법상(法像) 앞에 무릎 꿇고 사부님께 그 수련생을 구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침에 밥을 하는데 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돌아왔다.” 또렷하게 연속해서 두 번 말했고 나는 매우 감동해서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렸다.

2. 중생은 구원받기를 갈망한다

1) 노인이 놀라며 말했다.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탈퇴해서 평안을 지키고 재난을 넘기겠습니다”

한번은 거리에서 70세쯤 돼 보이는 노인을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대법 진상을 알려주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자기는 부처님이 보호해주신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둘이 만난 것도 인연이에요. 당신은 공청단에 가입할 때 그것을 위해 평생 분투하겠다고 선서 했지만, 중공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신을 믿지 않으며 수련하는 좋은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그것은 하늘의 응보를 받을 거예요. 당신이 탈퇴하지 않으면 그것의 일원이 돼 그것과 함께 매장당할 거예요. 탈퇴해야만 평안을 지키고 이 재난을 넘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의 말을 듣고 그는 놀라며 “아! 원래 이런 거였구나. 당신 말을 들으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우리집 식구들도 모두 불교를 수

련하니 우리는 인연이 있는 거네요. 탈퇴해서 평안을 지키고 재난을 넘기겠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격해서 세 번이나 나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부축하며 꿇지 못하게 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진상을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사부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고,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하려면 우리 사부님께 감사하세요.” 노인은 감동해서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고, 나는 “우리에게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했다.

2) 거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외친 행인 “공산당에서 탈퇴합니다!”

2014년 봄 어느 날, 나는 거리에서 걸어가며 행인들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있었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에게 “선생님,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로 평안을 지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라고 하자 그가 “무슨 평안을 지킨대요?”라고 물었다. 나는 “인류에 큰 도태가 있을 텐데 바로 공산당을 겨냥한 거예요. 당원이세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도태될 때 연루될 거예요”라고 했다. 그는 탈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입당할 때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그것을 위해 평생 분투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는데, 탈퇴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또 “공산당은 계급투쟁을 벌여서 매번 운동마다 수천만 명이 억울하게 죽었고, 중국에서는 8천만 동포가 각종 운동 중에 사망했어요. 3년 대기근 때는 굶어 죽은 시체가 사방에 널렸고 사망자가 4천만 명에 달했어요”라고 했다. 나는 또 중공의 다른 악행들도 말해주었다.

그는 듣고 나서 “어떻게 탈퇴해요?”라고 물었다. 나는 “별명이나 가명으로 인터넷에서 탈퇴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동의하며 하늘에 탈퇴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저는 실명으로 탈퇴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오른손을 들고 큰소리로 외쳤다. “저는 중국공산당에서 탈퇴합니다!” 소리가 매우 커서 행인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았고 나는 주변의 공기도 진동하는 것 같았다. 이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다.

3) 호신부를 받은 사람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한번은 수련생 A와 함께 농촌에 자료를 배포하러 갔는데, 어느 집 마당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 그 차에 진상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다. “내 차에 왜 이걸 붙여요? 파룬궁이 당신에게 돈을 얼마 줬길래,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을 보낼 수 있어요. 집에서 손자나 돌보지 왜 나왔어요?” 나는 “죄송합니다. 차를 더럽혔네요. 깨끗이 닦아드리겠습니다. 차문이 닫혀 있어서 안에 넣을 수 없어 붙였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호신부(護身符)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건넸다. 그가 손에 받아들고는 “아이고,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라고 말하며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생명의 명백한 일면이 깨어난 것이다.

또 한번은 길에서 80대 노인을 만났는데, 큰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지셨길래 이렇게 무거워요?”라고 묻자 그는 자기가 직접 만든 걸레 200여 장이라며, 예전에는 자동차 수리점에 팔았는데 지금은 수리점에서 받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그냥 고물상에 파세요”라고 하자 그는 고물상이 너무 적게 준다면 한 장에 1마오(角)밖에 안 주는데 자신은 최소한 1.5마오

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200장의 걸레로 최소한 30위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데 마침 옆에 고물상이 있었다. 내가 그 고물상에게 걸레 한 장에 얼마냐고 묻자 1마오라고 했다. 나는 “이분께 파세요. 이분이 20위안을 주시면 제가 10위안을 보태드릴 테니 그럼 30위안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매우 감동하며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네!”라고 말했고, 고물상도 맞장구를 치며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사람 만나셨어요”라고 말했다. 이때 노인이 고맙다고 말하며 나에게 무릎을 끓으려 했다. 나는 급히 부축하며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대법 사부님께 감사하세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는 그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주고 그가 가입했던 공청단과 소년선봉대를 모두 탈퇴시켰다.

나는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조금 했을 뿐이며, 정진하는 수련생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집중해법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닦고 집착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겠다. 심성을 제고해야만 순수하고 온화한 마음가짐으로 중생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구하는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 특히 중공에 세뇌당해 대법에 저촉감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고 온화한 마음으로 진상을 명확히 알려주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나면 가서 구하고 만나면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본인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저는 올해 80세입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를 생기발랄한 젊은이와 같은 상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잘 나가고, 걸을 때는 마치 계속 해서 가볍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글자를 전혀 몰랐던 제가 대법서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농촌의 평범한 노부인이었던 제가 사람을 구하는 ‘신비한 할머니(神老太)’가 됐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저는 오직 사부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많이 구함으로써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할 뿐입니다.

온 마을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삼퇴하다

제가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 까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삼퇴했습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삼퇴했고, 특히 당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권해서 탈퇴시켰습니다. 이 마을 간부들은 예전에 모두 잘 알던 사람들인데 저 역시 한때 마을 부녀주임을 맡았던 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삼퇴를 이야기하자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른 인근 마을의 노당원들과 마을 간부들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삼퇴를 도왔습니다.

저는 매번 삼퇴를 하러 나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 앞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외지에서 일하러 나간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장사를 하

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소식만 들으면 즉시 찾아가서 삼퇴를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여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한 마을 사람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바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인사치레는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돌아왔구나. 내가 꼭 알려야 할 일이 있어. 삼퇴하면 평안을 지킨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천재인화(天災人禍, 천재지변과 인재)가 끊이지 않아 누구나 평안을 원해. 하지만 당(黨)·단(團)·대(隊)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모두 짐승의 표식이 찍혀 사령(邪靈)에게 목숨을 뺏겨 끌려가게 돼. 그러니 반드시 그 표식을 지워야만 재난을 넘길 수 있어.” 그는 이해하고는 연거푸 말했습니다. “저도 당에 가입했어요. 빨리 탈퇴시켜 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현(縣)위원회에 근무하는 젊은이가 일이 있어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그를 찾아가 삼퇴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조카, 이번에 돌아왔으니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알려줘야겠어. 당이나 단, 대에 가입한 적 있니?” 그는 겁을 먹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가입 안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얘야, 천재인화가 너무 많아서 언제 닥칠지 몰라. 반드시 짐승의 표식을 지워야만 재난을 넘길 수 있어. 너에게 삼퇴를 하라고 하는 건 내가 뭘 바라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그때 그는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 당에 가입했어요. 탈퇴할게요.”

장날에 사람을 구하다

우리 지역은 주변 여러 마을에서 매일 오전마다 장이 서는데, 저는 매일 오전 장터에 나가 사람을 구합니다. 한번은 자전거 수

리점 주인이 멀리서 저를 보고 부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 사람이 연달아 왔는데, 마치 제가 그들을 구해주러 오길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사람을 삼퇴시켰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많은 곳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걸을 때 바람이 일고 목소리도 크며, 80세 노인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 몸 상태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진상’입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고 대화 속에서 삼퇴를 권합니다. 제가 지금 천재인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들은 모두 깊이 믿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재난을 피하는 비결은 바로 삼퇴라고 알려줍니다.

한번은 배추 파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삼퇴하면 평안을 지키고 짐승의 표식을 지워 재난을 넘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쁘게 당을 탈퇴하고는 꼭 배추 몇 포기를 제게 주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삼퇴해서 평안을 지키라고 권한 건 무료입니다. 당신 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배추를 사는 건 별개의 일입니, 돈은 한 푼도 덜 낼 수 없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에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은 한 아주머니를 만나 먼저 물었습니다. “당에 가입한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천재인화가 너무 많습니다. 재난을 피하는 비결은 바로 삼퇴해서 평안을 지키는 겁니다.” 그녀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탈퇴시켜 주세요.” 저는 “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란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

습니다)'를 외우세요. 행복하고 평안해질 겁니다"라고 했으며 그녀는 기쁘게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받았습니다.

큰길 양옆에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다가가 삼퇴를 이야기합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알고 있고 제게 매우 익숙해서, 마치 제가 가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몇 마디 말만으로도 삼퇴를 합니다.

한번은 노인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삼퇴하면 평안을 지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공산사령이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은 당이나 단, 대에 가입한 적 있으세요?" 그들은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두 분에게 가명을 하나씩 지어드릴게요. 재순(財順), 복순(福順)이라고 지을 테니 당원에서 탈퇴합시다. 탈퇴하면 평안해집니다." 그들은 기쁘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네요. 탈퇴, 탈퇴, 탈퇴합시다."

한번은 장터에서 양을 사는 사람을 봤는데, 딱 봐도 도시 사람이었고 양 파는 사람과 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은 1100위안을 불렀고, 사는 사람은 꼭 1000위안이어야 산다고 하며 서로 팽팽히 맞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웃으면서 양을 사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딱 보니 농사짓는 사람도 아닌데 이 100위안이 그리 큰돈도 아닐 텐데요. 진심으로 사고 싶다면 이 100위안을 그리 아까워하진 않겠지요? 만약 이 100위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제가 드릴 테니 양을 사서 끌고 가세요." 양을 사는 사람은 이치를 깨달은 듯 웃더니 아주 기꺼이 양을 샀고 제게 돈을 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타고 말을 건넸습니다. "삼퇴하면 평안을 지킨

다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은 천재인화가 끊이지 않는데, 재난을 피하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비결인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당이나 단, 대에 가입하면 사령이 짐승의 표식을 찍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탈퇴해서 그 표식을 지워야만 재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는 시원스럽게 동의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정월 대보름이 될 때까지 저는 100여 명을 권해서 탈퇴시켰습니다.

제게는 또 하나의 작은 경험이 있는데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수련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게 매우 어렵고 또 삼퇴 이름을 기억해야 하기에 ‘희(喜)’, ‘순(順)’, ‘복(福)’ 같은 글자를 앞에 붙여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글자로 시작하면 여러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삼퇴해 준 사람의 이름은 그 위에 적어 두고, 상대가 스스로 지은 이름일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해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한 뒤, 글을 잘 아는 수련생에게 넘깁니다.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제 마음 속 깊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속인의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속인과 잡담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당·단·대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삼퇴하면 평안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권유받은 사람들 또한 매우 시원하게 삼퇴합니다.

요 몇 년간은 삼퇴를 권하기가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듯하고, 그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허스(승十)

대법 속에서 향상되는 경이로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람의 상태로 안으로 찾는 것과 수련인의 상태로 안으로 찾는 것’이라는 글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저 수련 심성 제고에 관한 이야기로만 여겨졌다. 다시 읽을 때는 글쓴이의 입장에 서서 인식의 승화와 경지의 향상을 느낄 수 있었다. 계속 읽다 보니 법의 위대함과 수련자가 법 속에서 끊임없이 향상되는 오묘함을 발견하게 됐다! 수련은 고되지만 사실 수련은 매우 즐겁기도 하다! 법리를 깨달은 후의 승화, 그 심신의 기쁨은 말로 전할 수 없고 마음으로만 알 수 있다.

나도 가정 내 갈등 속에서 질책과 원망, 분노를 억누르는 단계, 마음을 넓혀 원망과 미움이 없어지는 단계, 그리고 공을 미루고 허물을 떠안으며 사부님께 감사드리는 여러 단계와 과정을 겪었다. 이제 이를 적어서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하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 부탁드린다!

내 아내는 일 처리가 좀 덤벙대고 털털한 편이다. 집에 들어서면 신발과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 두고 보기 좋든 안 좋든 신경 쓰지 않는다. 뜨거운 물을 따르고는 병마개를 닫는 것을 잊고, 창문과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으며, 가스 밸브는 한 번도 잠그지 않는다. 세탁기 배수 호스를 빼내 물을 받은 후에는 하수구에 다시 넣지 않아서 다음 번 세탁 때 물이 넘쳐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된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정말 많다.

처음에는 아내가 단지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계

속 일러주었는데, 나중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점차 질책과 원망으로 변해갔다. 원망이 많아지자 아내는 “선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이에요”라고 말했다.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이 말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입으로는 감히 원망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가끔 원망하고 싶어지면 “원한을 품지 말고 당신의 선(善)을 지켜야 할지니”(홍음4-미혹의 올가미를 풀다)를 계속 외웠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나의 무엇을 수련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한 가정이고 하나의 정체(整體, 공동체)이므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보완해야지 질책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었다. 이렇게 하니 표면적으로는 훨씬 평온해졌고 아내가 저지르는 실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아내가 또 세탁기 배수 호스를 빼내 물을 받은 후 하수구에 넣지 않았다. 나도 세탁할 때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 당연히 물이 넘쳐버렸다. 이번에는 원망하지 않고 내 문제도 찾았지만 여전히 선의로 아내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난감했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질책과 원망이 돼버릴 테니까. 결국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가 또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아내가 물었다. “세탁하기 전에 배수 호스를 확인하는 걸 잊어서 물이 넘쳤어요.” 내가 대답했다. “공을 미루고 허물을 떠안다니 좋아요, 좋아요!” 아내가 말했다.

‘공을 미루고 허물을 떠안는다(推功攬過)’, 이 말이 나오자 갑자기 환하게 깨달은 것 같았다. 이것이 사부님께서 아내의 입을 빌려 나를 일깨워 주신 것이며, 나의 수련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느꼈다. 이전의 모든 갈등은 사부님께서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배하신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했거나 스스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낮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수련인의 상태로 안으로 찾을 수 있었다면 사부님께서 이토록 많은 고심으로 안배하시고 일깨워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일깨워 준 수련생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옛 기억 뒤에 숨겨진 사람의 정과 집착

글/ 캐나다 서양인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약 24년 전,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련해오면서 제가 줄곧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집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경험 및 지난 일을 반복해서 회상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오락’이자 가족 간의 유대를 돋독히 하는 긍정적인 일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 속인의 정(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들이 부지불식간에 후회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낳는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집에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족의 옛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는 것이며, 특히 어린 시절의 영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저의 언니 중 한 명이 사진들을 꺼내어 모두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그녀는 줄곧 세심하게 이 사진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왔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과거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 추억들을 되새겼고, 자주 “그때 참 좋았지”, “지나가 버려서 아쉽네”,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의 삶이 더 아름다웠어”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속인에게는 정상일지 모르나, 그들은 여전히 윤회 속에서 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이며, 수련인은 원만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 더는 또 다른 속인의 인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 아래, 우리는 오직 수련만을 위한 일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세간의 욕망과 감정적인 집착을 부여잡고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원만을 향해 가는 과정을 제한하고, 심지어 우리의 수련 길을 교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며칠 전 이 문제가 각별히 명확해졌습니다. 언니 중 한 명이 제게 우리가 젊었을 때와 가정생활 모습이 담긴 옛 사진 몇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사진들을 보며 향수에 젖어 들었고,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가졌던 계획들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강화됨에 따라 구세력이 저의 빈틈을 탔고, 더 많은 사진이 전

송돼 제 사상을 점령했으며, 저를 슬픔과 그리움 속에 깊이 빠뜨렸습니다.

갑자기 저는 한 가지 범상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진 찍기와 가족 영상 수집을 매우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옛 사진들이 거의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린 시절이나 짧은 시절의 사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언니도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을 수 없다며 놀라워했고, 그녀의 수중에도 아주 적은 몇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사진들이 거의 모두 제가 수련을 시작한 이후에 찍은 것들이며, 대부분 수련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저 우연일까?’

저는 점차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의 과거는 본래 제 눈앞에 계속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변했으며 더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련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제가 수련생조차 아니었던 그 시절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 집착이 부지불식간에 속인의 생각을 강화함으로써 저의 수련에 영향을 주고, 저의 제고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깨달음을 통해 저는 사진을 반복해서 보고 지난 일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저의 여러 집착이 강화됐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 우리가 짊어진 위대한 사명에 대한 책임감 부족, 안일함 추구, 미모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깊은 감정적 의존입니다. 물론 선량하고 자애로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들

이제 마음속에서 강화한 것은 자비가 아니라 갈망과 아쉬움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수련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무량한 것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그것은 평범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수련인은 마음을 수련에 두고 세 가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오락’을 평계로 ‘옛 추억’에 잠겨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부 집착들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가 마음을 정화하고 법공부를 할 때마다 내면에서는 깊은 평온함과 맑음, 그리고 해탈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게 어떤 길이 진정으로 더 나은 길이며, 또한 진정한 자아에 부합하는 길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법제자는 정말로 지옥에서 제명됐다

글/ 중국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께서는 《로스앤젤레스시법회 설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대법제자 매 사람 모두 지옥에서 이름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속인은 사람마다 모두 그곳의 명부에 이름이 있다. 이전에 지옥 명부 중에 있던 대법제자의 이름을 나는 당신들에게 모두 말소해주었고 지옥에서 제명했으며 그 속에는 당신들의 이름이

없다.”

아래에 내가 겪은 실화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에게는 시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의 대형 화물 차를 운전하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창춘(長春)을 지나던 중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창춘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나는 연말 업무가 바빠서 바로 가보지 못했다. 열흘 후 시동생이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주 가냘픈 목소리로 “형수님, 언제 오세요?”라고 물었다. 이 시동생은 스물여덟 살로 나보다 열두 살 아래인데, 평소 사이가 매우 좋았고 나를 무척 존중해줬다. 나는 일을 마친 후 휴가를 내어 창춘의 병원으로 갔다.

당시 나는 《전법륜》과 사부님 설법이 담긴 MP3를 챙겨 갔다. 차에서 내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밤 12시였고,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다. 상처가 매우 깊어 몸 여기 저기에 관을 많이 꽂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사부님을 인정해 봐”라고 말하며 대법서적을 펼치자 그는 사부님의 사진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몸이 이래서 사부님께 절을 올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합장하고 사부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 사부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말해줬다. 그는 합장 하며 사부님을 불렀다.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돌봐줄 테니 다른 사람들은 가서 쉬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기운이 부족해 말하는 것을 힘겨워하면서도 “창밖에 소귀(小鬼, 죽은 사람들)들이 가득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더 말하지 말고 쉬어. 그런 건 다 나에게 맡겨. 그들은 내가 온 걸 보고 다 도망갔으니 잠을 자”라고 말한 뒤 가부좌를 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뻐하며 “어젯밤에 잠을 아주 잘 잤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사부님을 뵈었다고 했다. 사부님께서 그를 데리고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는데, 붉고 커다란 기둥이 아주 높이 솟아 있었다고 했다. 꿈속에서 그는 개구쟁이 어린아이였는데 사부님께서 “넌 돌아가서 네 형수와 함께 법공부를 하거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가 글자를 모른다고 하자 사부님께서는 그의 엉덩이를 툭 치시며 “너에게 그림책을 하나 주마”라고 하셨고 그는 “그림책이라면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이어 사부님께서는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 명부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명부에 기록돼 있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의 이름은 모두 찾았지만 내 이름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시동생은 “형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모두 형수님이 아니었어요.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사부님께서 그를 통해 대법제자는 정말로 지옥 명부에서 제명됐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또 그를 데리고 18층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외할아버지가 십여 층 아래의 아주 낮은 곳에서 매일 늙은 소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생각해봤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농부였으나 마흔 살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셨으며, 자식 열한 명은 모두 외할머니 혼자서 키워야 했다. 살아서 일하지 않았으니 죽어서 매일 쉬지 않고 일하게 된 것이다.’ 반면 외할머니는 평생 원망 없이 고생하며 한번도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한 성품이셨기에 위쪽 층에 계셨다. 행실이 좋지 못했던 남녀들은 가장 더러운 뜻에 빠져 있었는데 그

곳 역시 십여 층 아래였다. 사람이 죽은 뒤 지옥의 어느 층에 가는가는 살아생전의 인품과 덕행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사람은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해 스스로 복덕을 쌓아야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며, 인과응보는 티끌만큼의 오차도 없다.

류홍샤 박해 사건에서 유출된 증거가 반(反)박해에 주는 시사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명혜망에 다롄(大連) 파룬궁수련자 류홍샤(劉紅霞)의 가족이 박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한 증거가 폭로됐다. 현지 법원은 류홍샤의 서적과 물품 등을 소위 ‘사교(邪教) 선전물’이라고 불법적으로 규정했는데, 이 소위 ‘인정 의견서’를 작성한 곳은 다롄시 공안국 사교 전담 사무실이었다. 류홍샤의 가족은 다롄시 공안국에 이 사교 사무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감정 기관 자격증’, ‘감정인 자격증’ 및 등록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안국 내설 기구가 사법 감정 활동을 수행해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를 만들었는데, 정작 같은 공안국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해당 기구가 사법 감정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이는 파룬궁을 박해해온 중국공산당(중공)의 일관된 습성인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박해가 이렇게 오래 지속됐는데도 중국의 법령(법규, 규칙, 사법 해석 등 포함)에 ‘파룬궁’ 세 글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 즉 파룬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평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혜망의 한 기사에 달린 주석이 이 질문에 답을 준다. “어떤 국가 기관도 신앙에 대해 성격 규정을 할 권한이 없다.” 법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관점에 동의할 것이다. 어떤 신앙이 사교인지 아닌지는 입법·행정·사법 기관이나 정당 등 그 어떤 세속적 권력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교’라는 말 자체가 법률 용어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바로 이 때문에 1999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소위 사교 처벌 결정이나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 어디에도 파룬궁을 직접 모함하거나 성격을 규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중공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법 기술상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공안부의 ‘공통자 [2000] 39호’ 문건에 파룬궁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문건에서 공안부와 각 성 공안청이 사교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문건 발표 후 공안부와 각 성 공안청은 파룬궁을 모함하거나 성격을 규정하는 공식 문건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2017년에 이르러 양고는 소위 사법 해석을 통해 공안부를 건너뛰고 지급시 이상 공안기관에 ‘사교 선전물’ 인정 권한을 직접 ‘부여’했다. 이는 ‘공통자 [2000] 39호’의 규정을 깨뜨리고 사교 인정 권한을 성 공안청에서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린 셈이다. 이후 각지의 박해 사건에서는 대부분 지급시 공안 국보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지대가 소위 ‘인정 의견서’를 발급하고 있다. 어떤 지역의 국보지대는 의견서 결론에 ‘사교 선전물’ 대신 ‘파룬궁 선전물’이라고만 적기도 하는데, 인권 변호사들은 이를 국보 요원들이 장차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뒷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공안기관이 ‘사교 선전물’을 인정하는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이다. 첫째, 신문출판 행정 부문의 직권을 침해한 것이다. 선전물은 출판물 관리에 포함되므로 불법 출판물 여부를 감정할 권한은 출판물 감정 기관에 있지 공안기관에 있지 않다. 둘째, 공직 부처와 인원이 ‘사교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감정 주체의 자격은 무엇이며 감정 기준은 무엇인가? 객관성은 담보됐으며 감정인의 전문 역량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정교(正敎)와 사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眞·善·忍)이다. 진선인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기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교를 인정’한단 말인가!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형사 사법 박해를 부정할 수 있는 관점과 방안을 제시한다.

1. 박해 사건 발생 초기, 즉시 지급시 국보지대를 대상으로 감정 기관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행정 심판 및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 ‘정보 공개’(전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2007년 4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2호 공포, 2019년 4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1호 개정,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 신청은 성공안청과 공안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사건 하나

로 10개 가까운 공직 부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제출한 법률 문서는 법원 기록실에 보관된다. 우리 문건에 박해의 죄악과 책임자를 직접 기록할 수 있다.

2. 박해 과정에서 사악한 ‘인정 의견서’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가동해 해당 문건의 무효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3. 우리가 시작한 모든 절차에서 발송한 서류와 받은 법률 문서는 즉시 박해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제기한 절차에 대해 해당 부처들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일관한다면 그 증거(발송 영수증, 발송 서류 사본 등)를 잘 보관했다가 박해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며 왜 이 부처들이 문제 정면 돌파를 피하는지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문서는 ‘인정 의견서’의 불법성과 황당함을 폭로하는 것이므로 문서 자체가 진상을 알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작성해야 한다.

4. ‘인정 의견서’의 근원인 양고 ‘법석 [2017] 3호’에 대해 박해받는 수련자나 가족이 전인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을 제출하고 이 가짜 사법 해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전인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 신청서는 이후 모든 단계에서 진상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5. 공식적인 법률 절차에 사용된 법률 문서는 진상 자료로서 널리 전달될 수 있다. 공직 부처와 인원들이 이 서류를 접수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박해 요소를 해체하는 과정이다. 박해자들 조차 우리의 법률 문서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거리에서 당당하게 법률 문서를 사람을 구하는 진상 자료로 배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조계 종사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률 문서의 주요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어떤 국가 기관도 정교와 사교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 사교와 정교는 법률 용어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사교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정교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인데, 법이 어떤 종교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지 정의한다는 것은 명백히 황당한 일이다.

◎ 정교와 사교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이다. 보편적 가치에 대적하고 이를 박해하는 조직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

◎ 중공 상층부는 파룬궁에 대해 공식적인 성격 규정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급시 공안기관이 무엇이 사교인지 인정하게 했다. 이는 지급시 이하 검찰·법원·공안 인원들이 모든 박해의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중공 상층부는 하층 인원들에게 함정을 팔 뿐 결코 하층의 박해 행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인간세상의 법은 물을 막거나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조항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려 한다. 하지만 막아도 끝이 없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으니 조항만 점점 번잡해질 뿐이다. 집행 면에서도 인류 도덕이 타락함에 따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검찰·법원·공안 인원들도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게 됐다. 그들은 시민들이 번잡한 법 조항을 연구할 겨를이 없고 중공의 권력과 맞설 재력과 힘이 없음을 이용해 시민을 괴롭힌다. 근본적으로 중공은 ‘당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하며 법은 국제사

회 앞에서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이자 국내 인민을 탄압하는 도구이며, 문제를 일으킨 후 인민들이 일말의 환상을 갖게 만드는 돈벌이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하늘의 법은 영원불변하며 모든 사람과 일을 가늠하고 있다. 신의 눈은 번개와 같아 사람이 인과응보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일일 뿐 천도의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진선인이라는 우주 진리의 존재와 법력을 바꿀 수도 없다.



▲ 캐나다 토론토의 대법제자들이 토론토 시청에 모여 사부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대법을 세상에 전해 무수한 중생을 구해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02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645만 0872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